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목동 '엄지마을' 도시재생·가로주택 결합해 정비

양천구 목동 231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고시, 3월 본 궤도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층주거지인 양천구 '엄지마을'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300호 규모의 새 아파트를 신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의 약 24.3%로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보강한다.



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새롭게 지정했다.

를 시작한다.'23년에는 공동이용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 목표 추진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칼럼] 빙산의 일각인 정인이 사건



박경숙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그 전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공간대를 사고 있다. 물론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양천경찰서장이 어떤 조처를 받았든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뒤늦게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말았든 이 또한 남은 자들의 몫이다.

영등포구, 피해업종 소상공인 선결제로 살린다...20% 할인 혜택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선결제...15개 결제

애플리케이션 통해 구매 가능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앓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결제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참여업소와 구매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를 추천받아 참여를 두려워하기도 했다.그 결과 1월 7일 기준, 총 428개 업체가 동참의 뜻을 보이며 모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 가능 업소를 검색할 수 있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선결제상품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뭄 중 단비처럼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적

극적이고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와 피해업종 소상공인의 동참으로 코로나 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경북 동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는 지난 1월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 김강식 의원, 김달수의원, 김재균의원, 김중식의원, 염종현의원, 오지혜의원, 원미정의원, 이영봉의원, 정희시의원, 이제영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 방안을 연구에 추가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의회 인력 증원 등의 이번 법개정은 도와 도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특히 특례시에 해당될 지역이 많은데, 이를 면밀히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 연구가 선제적으로 개정법 관련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 의회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만에 이뤄진 만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에 따

른 대응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많다”며 “기존 연구들과 중복되는 점 없이 효율적으로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그동안 의회도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를 참고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경기도 맞춤형 방안들이 나올 것”임을 이야기했다. 이제영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에 꼭 필요한 연구이다”며 “개정되는 대통령령들도 반영된다면 연구가 보다 시의성을 갖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지금까지의 문헌연구, 면담,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언급했다.**

최정근기자

국민의힘,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농어업계 코로나19에 자연재해까지 이중고 시달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

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앞선 데 덧붙여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불철 냉해 피해를 비롯해 유례없던 최장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정부의 농어업 확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청탁

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가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상한액 상향 촉구해 목소리를 모았다.

최광수기자

고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 수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우수조례 대표발의, 2급 포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생활개선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의회 교섭단체의 일하는 이미지 제고 및 정책중심 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제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된 전부개정된 310건의 조례 가운데 117명 소속의원이 공모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조례 5건, 우수조례 5건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최우수조례를 대표발의한 5명의 의원에게는 본 상을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 수상과 2급 포상의 인센티브를 획득하게 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은정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심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내 복귀 유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계

획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했으며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금융 및 재정 지원, 산업단지 우선공급, 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지원, 해외사업장의 청산 지원, 동반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던 고은정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과 입법활동으로 힘이 되는 도의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최정근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성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페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우형찬 교통위원장, 안전본부장 없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민의 안전에는 문제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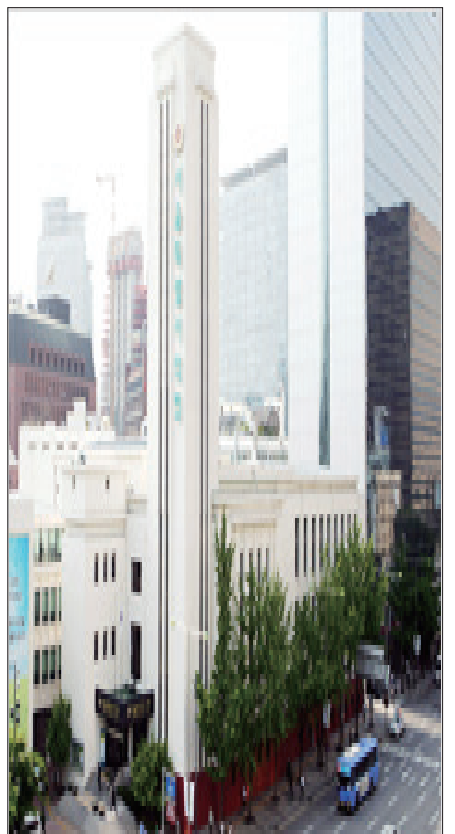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을 공식으로 하고 기술본부장 보직 변경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가 현 안전관리본부장을 기술본부장으로 보직 변경하고 안전관리본부장은 직무대행을 하도록 한 이번 인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차량본부장과 기술본부장을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차량본부장만을 선임하고 기술본부장은 선임하지 않은 채 임명된 지 4개월 밖에 안 된 현 안전관리본부장을 기술본부장으로 보직변경하고 정작 안전관리본부장은 직무대행을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를 강행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달 리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안전관리본부가 2017년 양공사 통합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최우선 경영목표를 “안전”에 두겠다는 목표에 따라 1~8호선 전 구간에 대한 안전운행에 관리·감독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교통공사 내 6개 본부장 중 최 선임 본부장으로서 과거 강남역, 구의역,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안전관리의 수장인 안전관리본부장을 공식으로 두는 것이 자칫 지하철 운영에 있어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 한 처사로 비취질 우려가 있고 임명된 지 불과 4개월 된 안전관리본부장을 보직 변경하는 것이 과연 서울지하철 안전운행에 바람직한지, 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인사였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자리이다”고 말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안전관리본부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면서까지 기술본부장이 중요했다면 기술본부장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안전관리본부장의 직무대

행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전관리본부장 공모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순희기자



www.yyg.go.kr
영양군 YEONGYANG-GUN

FOOD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점 대한민국의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밍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 · 산간괴저 영양예실참사과 · 아삭아삭 시원달콤 영양배 · 피부미인 영양복숭아 · 저농약인증 영양포도 · 해발 1,219m 영양수박 · 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체스 · 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버섯 · 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 · 괴저지 무공해 영양잡곡 · 펴으로 기른 영양담배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ATAA

"코로나 시대 070안심콜로 안전을 책임지다"

CSR 사회공헌 사업단 오승현 단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확진자 접촉자를 역학조사 하기 위한 사업장 출입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출입 시 QR코드로 확인하는 방법과 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함과 정확성이 떨어져 안심콜 시스템을 전국 관공서와 단체,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방문하든 방문 등록을 하기 위해서 QR코드 또는 수기 명부를 작성합니다. QR코드 또는 수기 명부 작성에 대한 불편함을 대신하기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출입등록이 되는 안심콜 서비스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양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용의 편리성과 빠른 행정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며, 문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전화 번호가 기존의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쓸데없는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로 하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의 전화 번호는 02-123-4567 또는 070-1234-5678 등과 같이 일반전화 번호를 사용해도 되고, 기존의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를 사용해도 본래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양시나 많은 지



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를 전화로 하는 사람 즉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 즉 전화 번호를 착약한 기존의 사업자가 발신자의 전화요금을 부담합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근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95%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 통화료는 무제한으로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 또는 문자를 보낼 경우 무제한으로 전화 통화료에 대한 부담이 없는 분들입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화료를 내지 않아

도 되는 데 굳이 수신자가 전화비용을 부담하는 기존의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11년 5월 31일까지 4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기존의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로 통화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의 95%는 절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95% 비용은 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왜 무료로 전화를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인데, 유료로 전화비용을 받는 기존의 수신자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해서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수신자 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중소상공인 사업자는 나름대로 괜찮으나,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까지 기존의 번호로 사용하게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헬세가 낭비되지 않고,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일반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가진 95% 국민들은 편하게 이용을 합니다. 낭비되는 헬세가 없습니다. 2G 폰,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존의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반전화번호와 기존의 수신자번호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지금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급진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존의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 확대 분위기는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일반전화 방식의 많은 비용을 줄이고 보다 저렴한 070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우/논설위원

민주주의의 꽃 '은평 열린청원' 운영

주민의 생각을 담은 주민청원제 운영 시작

은평구가 구민 1,000명의 청원에 구청장이 답하는 '은평열린청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0일 은평구청 홈페이지 내 '은평열린청원' 게시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은평열린청원'은 '주민의 생각을 담은 주민청원제 운영'이라는 은평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은평구 정책을 만들겠다는 김미경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은평열린청원'은 개별적인 사안

조상순/기자



정하영 김포시장, 2021년도 4대 핵심시정 밝혀

시민행복과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점사업에 행정의 초점 맞춘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2021년도 '더 큰 김포'를 만들기 위한 4대 핵심시정'을 밝혔다. 스마트에코 경제도시, 평생교육도시,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도시, 경쟁력있는 한강신도시 완성이 그것이다. 김포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4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에코 경제도시는 도시의 경제적인 면에 대응해 가치있는 경쟁력을 발굴하고 스마트한 기술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곶지구를 도시재생 스마트환경 순환시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을 중심으로 면적은 약 5백만㎡ 규모다.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갔으며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금년도 경기도에 승인신청 예정이다. 지역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도 지난해 6월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40억을 이미 확보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 2022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다. 이는 혁신

센터 건립으로 지역특성화산업 육성과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통합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동반 경영자금,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총체적 도시재구조화를 통해 김포 전역을 평생학습 공동체로 만든다. 오는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3를 진행하고 장기동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한다.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스마트 디지털 교육 시설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한 체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진행후 내년도 상반기 중 착공한다. 이 외에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유·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중·고교 수학여행비 지원도 계속한다.

지식·정보·평생교육의 중심이 될 공공도서관도 추가 건립돼 마산도서관이 오는 9월이면 개관한다. 운양도서관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3년 개관



예정이다. 김포에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한강하구와 북한을 지척에서 볼 수 있는 애기봉등 평화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이는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안보·평화관광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애기봉전시관과 전망대 상부 야외공연장도 상반기 중 완공된다.

애기봉 주변 평화로 1단계 공사는 연말 착공에 들어가며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태산패밀리파크간 도로도 설계 진행중으로 2023년에는 공사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연말까지 한강변 경계철책 제거를 완료해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계획된 480만평에서 330만평

김영근/기자

인천시,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 생긴다

과기정통부 2021 지역과학문화 공모사업 선정, 매년 국비 2억2500만원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학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 시설이 운영된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로 선정됐다.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과학문화시설-전문가-프로그램을 긴밀히 연결하고 주민들이 과학을 문화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매년 국비 2억2천5백만원을 지원 받게 됐으며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 역할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연구소가 수행하게 된다.

전국 10개 거점 중에 하나로 선정된 인천대학교는 과학기술문화

김종남/기자



온앤오프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열린다

학습자치가 생활자치로 확장되는 2021 온앤오프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이웃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심 있는 운영자를 찾습니다.

- ▶ 접수기간: 2021. 01. 04(월) ~ 01. 31(일) ※ 기간 내 접수
- ▶ 선발시: 2021. 1. 11 ※ 기간 내 최종 조망 가능
- ▶ 선발대상: 은평구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공공기관 직원, 은평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은평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은평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은평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 ▶ 선발인원: 50명(정원) ※ 운영지역: 은평구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공공기관 직원, 은평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은평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은평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 ▶ 운영시간: 1주 1회, 1시간 운영
- ▶ 운영장소: 은평구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공공기관 직원, 은평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은평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은평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 ▶ 문의처: 은평구청 기획협력팀 (02-351-3673) ※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은평구와 은평구평생학습관은 '2021 온앤오프 은평 우리동네배움터'를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은평 우리동네배움터는 은평구 민선 7기 공약인 '생활단위 시민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에는 배움터 19개소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운영되어 코로나19 속 주민들의 학습공백을 메워왔다.

올해는 배움터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시민주도형 학습 모델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 차시 중 50% 이상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2021. 온앤오프 은평 우리동네

배움터'로 선정된 공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온라인 학습 공간 조성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5개 이상의 온앤오프 강좌 운영, 지역 사회 문제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직접 실천하는 '학습-실천 프로젝트'를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원자격으로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본 환경이 갖춰진 개방이 가능한 본인 소유의 공간이 있고 공동체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공헌 및 재능 나눔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간 소유자는 은평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2021 온앤오프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조상순/기자

김영록지사, “대설·한파 피해 철저히 대비해야”

7일 대설·한파 대처사항 점검회의 주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대설·한파 대응을 위한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갖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전남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가진 점검회의는 실국장들이 함께 했으며 대설·한파에 따른 대응 상황과 향후 추진대책 등이 논의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적설과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번 대설·한파로 인해 7일 오전 9시 기준 도내 17개 시·군에 대설·한파 특보가 발령 중이며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담양군과 장성군에는 대설 경보가 발령돼 많은 눈이 내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빙판길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공공기관 장비뿐만 아니라 민간장비도 임대해 신속한 제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닐하우스 눈치우기 등 인력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군부대 등과 협의한 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마을공동체와 자율방재단 등 도민의 협조가 필요한 내 집 앞 눈 치우기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수도계량기 및 상수도관 동파, 양식어류 동해 피해 등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피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에 나섰다.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안전 점검과 함께 양식어류 월동장 이동 및



이선 임출항 통제·결박·대피 조치를 마쳤다. 방파제·해안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은 출입을 통제시켰으며 제설 중점구간은 집중적인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 재난취약계층 대상 1일 1회 안부 확인 및 24시간 응급진료 비상체계 구축을 비롯 공중과 자막방송, 재

난문자 및 마을방송을 통한 대설·한파 예방 도민 홍보 등도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는 기상청 기상예보에 따라 비상근무 단계 상황조정 등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대설·한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김영만/기자

서울시, 최대 10개월 체류비용 60% 지원... 귀농,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귀농교육 참여 101세대 중 80세대 귀농 정착

결정→안정적인 현지적응 효과 높아

서울시에서는 제천, 무주,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의 60%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농촌에 대한 ‘이해 → 실습 → 적응’ 등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2017년 전국 5곳에서 28세대를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 60세대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체류형 귀농시설 입교비의 6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감

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지역 농가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교육생’을 연결해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생 101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절반 수준인 49세대가 농촌에 이미 정착했고 귀농 예정인 31세대를 포함하면 80세대가 귀농·귀촌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1월 28일까지 접수받으며 지역별 운영 현황과 지원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모집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와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



제 귀농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심사방법은 귀농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발하고 귀농교육 이수자와 가족 수가 많거나 연령이 적은 세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귀

농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이 세대별 특성과 개인특성,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귀농·귀촌을 체험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구로구, 산책로 위치정보 제공하는 ‘구로행복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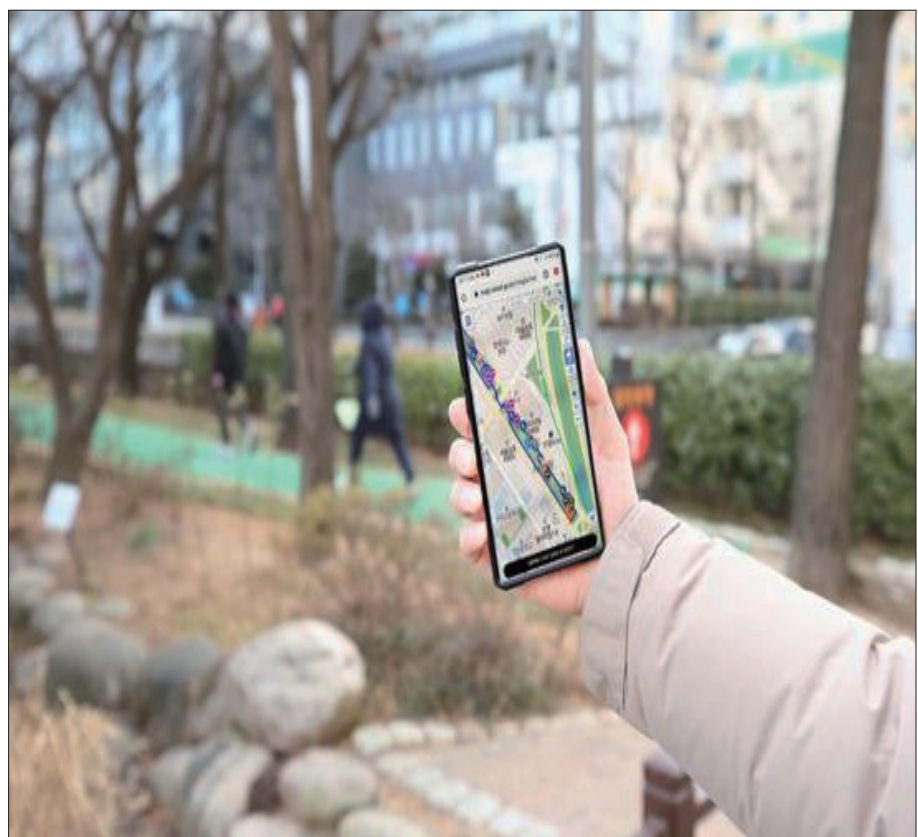
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서울맵에서 이용 가능... 주민만족도 고려해 서비스 지역 확대

구로구가 지역 내 산책로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구로행복길’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로구는 “산책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 PC 등으로 제공하는 ‘구로행복길’ 서비스를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산책 코스와 운동기구, 쉼터, 화장실, 음수대, 휴먼지텔이 등 각종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신고를 위해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종합병

원 응급센터 등의 연락처도 제공되며 시설물 파손에 대한 불편신고도 가능하다.

서비스 지역은 개웅산둘레길 거리공원 고척근린공원 연지근린공원 잣절공원 천왕근린공원 푸른수목원 향동철길 천왕산가족캠핑장 등 지역 명소 9곳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서울맵에 접속하면 된다. 구로구는 서비스 구축을 위해 산책로 인근 시설물에 대한 위성측량량을 실시하고 ‘스마트서울맵’에 관련 정보도 등록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고려해 ‘구로행복길’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서구, ‘걷고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 향해 큰 걸음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지자체 선정

‘걷고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딘 인천 서구의 노력이 하나둘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이번 공모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힘쓴 우수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친환경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간의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행정안전부의 1차 서류심사와 공개검증, 2차 심사 평가를 거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서구는 55만 구민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고 국토 종주 자전거길의 시점인 정서진과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펼

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며 생활 밀착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왔다. 또한, 매년 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안전교육 진행, 방치 자전거 수거,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밖에도 관련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구민의 자전거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서구의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례적인 서구청장은 “올해엔 자전거도를 통해 아라뱃길과 정라가 생태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라며 “잘 만들어진 자전거길을 따라 힐링하며 서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라뱃길을 찾는 하이킹족을 청라까지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장은 “이러한 구상을 서구 전역으로 이어나가고 ‘서로이음길’ 조성과 생태하천 복원사업과도 연계해나감으로써 서구를 ‘걷고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남/기자

2021년 영동꽃감축제는 온라인으로 찾아갑니다

온라인 영동꽃감장터에서 만나는 영동꽃감의 달콤쫄득한 매력

감고을 충북 영동의 명품 겨울축제인 영동꽃감축제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추진된다. 군과 재단은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에 따라 영동꽃감 축제를 영동꽃감장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판매 중심의 온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영동군이 주최하고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한다. 겨울철 지역대표축제인 영동꽃감 축제는 영동꽃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고향의 정겨움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축제로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기존의 축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했으며 농가의 소득창출과 판매 확보를 위해 다양한 판매 촉진사업을 온라인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 이를 위해 기존 3~4일간 추진되었던 행사기간을 연장에 운영한다. 구정영휴 등 꽃감 판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간

을 고려해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9일간 영동꽃감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꽃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유튜브, 콜센터, 스마트 스토어, 우체국 쇼핑몰 등 온라인 창구를 다양화해 판매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꽃감농가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군과 재단은 온라인으로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영동꽃감장터를 홍보하고 영동꽃감을 알리기 위해 영동꽃감 4행사, 꽃감 보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동꽃감 이야기, 꽃감농가 소개, 영동꽃감 컨퍼런스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다. 영동꽃감의 매력을 흠뻑 느끼고 품질 좋은 영동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존에 해왔던 전통적인 축제방식에서 벗어나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인 만큼 이번 영동꽃감장터는 군과 재단의 고심이 드러나 있다.

군 관계자는 “영동꽃감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영동꽃감축제를 개최하지 못해 무척 아쉽다”며 “2021년 영동꽃감장터가 영동꽃감의 우수상을 널리 알리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www.ydfesta.com

네이버쇼핑 영동온라인장터 1. 13(수) ~ 2. 5(금)	꽃감구매 콜센터 1644-2966 1. 18(화) ~ 2. 5(금)	라이브 커머스 꽃감특별기획전 1. 20(목) ~ 1. 24(토)	유튜브 채널 영동꽃감 TV 영동꽃감 특별 판매 홍보쇼 1. 20(목) ~ 1. 24(토)
---	--	--	--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행운이벤트**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최 | 영동군 주관 | 영동축제관광재단·영동축제관광협회 후원 | 방송 MBC | 2021 영동꽃감장터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온·오프라인 성과공유회 개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통한 성과 공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해를 돌아보는 성과공유회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오프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성과공유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교리, 예산3리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주민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그동안 운영한 활동가 운영,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지난해 군민과 함께한 도시재생 사업을 소개하고 군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온라인 성과공유회는 언택트 시대 비대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 11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주민참여’ 운영로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주체들과 운영과정 결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및 아이디어 공유 등이 이뤄진다. 특히 13일에는 온라인 토크쇼를 진행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온라인 상시 이벤트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기업의 상품을 증정하고 활동가가 만든 ‘예산의 명소 인증샷’ 댓글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2020 성과공유회의

2021. 01. 11 ~ 01. 15

온라인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오프라인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남원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점검

남원시는 다음달 10일까지 공중화장실 12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등 동절기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먼저 남원시는 공중화장실 시설 및 표지판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살균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 단속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 불법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남출기자

남원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편의용품 미비지, 청소상태 불량, 시설물 파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하고 불법촬영카메라가 확인된 경우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남원시는 스마트 폰과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무상대여 하고 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는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대여 신청을 한 후 방문 수령하고 일주일간의 대여기간 내에 사용을 마친 뒤 반납하는 형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물 단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자 첫 고발

거짓 진술로 접촉자 고의 누락 드러나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초 발생한 부산 보험회사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시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조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인 A씨는 시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3명과 식사를 해

고 자택에 있던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한 다음 진술에서 누락시킨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확진됐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통보했다.

A씨의 통보를 받은 B씨는 검사 결과 양성 나왔고 A씨의 거짓 진술은 B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다중이용시설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입소

자 선제검사 실시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허성근 시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위기를 빨리 이겨 낼 수 있도록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의정부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1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2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에 대해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관한 방지시설의 설치유무, 세론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할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

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고발 2건, 행정처분 30건, 과태료 부과 12건을 처분한 바 있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겨울철은 대기정체, 난방증가 등의 사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수원시, 방역수칙 위반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집합금지·과태료 처분

역학조사 완료되면 법적 검토 거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수원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설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

또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검토 검토할 예정이다. 권선구 한 건물의 5·6·7층을 사용하는 A종교시설은 교회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휴

스쿨링 위탁교육시설로 이뤄져 있다. 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7일 오전까지 학생·교직원, 그들의 가족, 교회 관계자 등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A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교육시설 학생·교직원 23명은 12월 23~24일 29~31일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수차례 대면예배를 했다. 또 6층에 있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에는 칸막이가 없었고 식사 중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참여자 명부 관리도 부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0일 관내 모든 교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광주서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감지장치 시범설치

기후환경과, 화장실 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감지장치 설치

광주 서구가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화장실 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촬영감지장치를 시범설치했다.

이번 시범설치는 평소 이용객이 많은 상무시민공원, 삼학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서구는 관내 공중화장실

55개소 전 구역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고 비상벨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힘써왔다. 하지만, 최근 아동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와 불법촬영 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에 서구는 서부경찰서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된 장치는 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 시 사물을 감지해 벨을 울려주는 장치로 불법촬영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 범행자가 바로 노출됨으로써 불법촬영 예방과 적발이 용이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불법촬영감지장치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해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상주시, BTJ열방센터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긴급행정명령 발동

상주시는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BTJ열방센터에 대해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발원지인 A종교시설에 급증함에 따라 47종, 제49조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일시적 폐쇄 기간은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오전 BTJ열방센터 방문 시설폐쇄안내문을 정문 등에 부착하고 행정처분서를 전달했다. 상주시는 일시

적 폐쇄 기간 동안 BTJ열방센터 진출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출입자 및 각종 행사 실시 여부 등을 24시간 점검한다. 상주시는 지난 4일 BTJ열방센터를 찾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센터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역학조사에도 협조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열방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방문자가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추정되는 BTJ열방센터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 발원지인 A종교시설에 급증함에 따라 BTJ열방센터 측의 방역

협조가 절실한데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시적 폐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BTJ열방센터와 해당 시설 방문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성북도와 함께 BTJ열방센터 범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했으며 11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 비협조 행위로 이어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 훼손 등으로 상주시로부터 총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최민식기자

안성남 구리문화재단 이사장, 구리 예술인 및 단체 실태조사 진행

구리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는 1월 29일까지 구리시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현황을 파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에 맞는 예술인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구리시 예술 활동 현황을 파악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예술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구리시에 거

주하거나 3년 이상 구리에서 활동한 만 19세 이상 예술인 및 예술단체로 구리문화재단 홈페이지 ‘구리시 예술인 찾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안성남 구리문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구리시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에서 적극적인 설문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근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 031.984.8245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2021 상반기 입주기업 추가 모집

입주 사무 공간 및 창업 멘토링 교육, 제품 홍보, 네트워킹 등 연계 지원

광명시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는 '2021년 상반기 창업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입주기업 5개 팀을 추가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예코디자인 및 콘텐츠 융·복합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예비 창업자이다.

입주기업으로 선발되면 2월 1일부터 5개월 간 월 2~5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입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5~6개월마다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 가능하다.또한 회의실, 최신 산업장비가 갖춰진 교육실, 공동 작업실 등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의 창업 교육·멘토링, 제품 시장성 테스트, 자금 지원 및 엑셀러레이팅, 네트워킹 행사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4.4평의 독립형 입주 오피스 4개, 2.7평의 오픈형 입주 오피스 6개로 총 10개의 입주기업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다.신청을 원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은 광명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경기문화창조허브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창업 장벽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입주 스타트업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간 지원 뿐 아니라 성장 촉진에 최적화된 창업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광명시 창업기업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고양시, 거리지도 2종 제작

골목 맛집부터 구제상품 쇼핑까지 유용한 관광정보 실어

고양시가 bamridan·보넛길, 식사동 구제거리를 안내하는 거리지도 2종을 제작했다. 이번에 만든 거리지도 2종은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돕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를 중심으로 제작한 테마형 지도다.거리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골목 상점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추천 코스, 고양시 대표 관광지 등까지 유용한 관광정보가 풍성하게 실렸다.bamridan·보넛길 거리지도는 '고즈넉한 감성과 마주하다'라는 컨셉으로 bamridan 길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한다.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주택가 일대의 맛집, 공방, 엔틱 소품샵 등을 여유 있게 거닐며 산책처럼 즐길 수 있다.이곳은 처음에는 보넛길이라 불리다가 상권이 확대되면서 bamridan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식사동 구제거리는 견달산로 주변에 구제상품 매점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조성된 거리다.이 거리의

지도 컨셉은 '신나는 구제거리- 패션 피플의 보물창고'다.거리지도들 들고 복고 쇼핑을 즐기며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종류의 구제상품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거리지도 제작에 이어 앞으로도 고양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간이 협력한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시티투어와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등 노력을 계속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amridan길·보넛길, 식사동 구제거리의 관광 길잡이가 될 이번 거리지도 2종은 고양관광정보센터, 고양시청 및 각 구청 민원실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또한 고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거리지도도 직접 받아볼 수도 있다.한편 고양시는 웨스턴돔-킨텍스를 잇는 고양관광특구 지역에 대한 관광 지도를 제작·배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 전역의 관광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고양시 관광안내지도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군포시, 2021년 청년활동 지원사업 공모

청년단체·동아리 1곳당 300만원~100만원 지원

군포시는 지역내 자발적 청년단체와 청년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군포시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나 동아리이며 청년단체는 청년회원 5명 이상, 동아리는 3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청년단체 지원사업인 '심포니 프로젝트'는 사회·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의 권익증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단체 1곳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인 '청포유 프로젝트'는 자율성과 공익성 등을 위주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가진 동아리를 지원하며 동아리 1곳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단,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무실 임대료나 현금성 지출증비 등도 지원되지 않는다.신청 기간은 2월 2일까지며,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단체와 동아리가 선정될 예정이다.

임현주 청소년정책과장은 "자율성과 잠재력을 갖추고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두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자로서 청년문화를 조성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 언택트 사업 등 창의적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해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년단체 5곳과 청년동아리 10곳 등 모두 15곳을 지원했다.

이성을/기자



'2021 수원-가오송 대학생 화상교류'참가자 모집

1월 18일까지 신청, 문화·취미 등을 주제로 화상 언어교류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18일까지 '2021 수원-가오송 대학생 화상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원-가오송 대학생 화상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해 내·외국인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외국인인과 소통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중 중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하여 대만 가오송시 대학생들과 서로를 소개하고 한국과 대만의 설 명절·음식 문화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화상교류 1반, 화상교류 2반 등 5명씩 10명을 모집한다.무료 프로그램이다.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1 수원-가오송 대학생 화상교류 참가자 모집' 안내문에서 쿼알코드를 스캔하거나, 신청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수원시-가오송시는 2019년 2월 국제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속해서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3월까지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평택 지제역 동문곳모닝힐맘시티 2차

안산시, 조두순 거주지 이웃 피해 영상 40건 삭제 요청... “시민 피해 아랑곳 않는 유튜브”

영상물 전수조사 통해 40건
특징·욕설·주변 초상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소지

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불법촬영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 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행위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조두순’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조사한 시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 40건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문제점 등의 설명문을 첨부해 구글 LLC에 삭제요청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

순 거주지 인근 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나,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는 별도 법인인 구글 LLC에 영상물 URL 불법으로 생각되는 법적 근거 및 자세한 이유 등을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글코리아는 또 구글 LLC가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들 자의적으로 검색해 삭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물이라도 요청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검토 후 삭제한다는 것이다. 시가 삭제 요청한 영상을 살펴보면 욕설 및 폭력적인 행위가 필터링 없이 전담되며 어느 지역인지 특정되는 데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경찰 관계자 등 다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돼 초상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현행법 보장된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이런 행위는 유튜브의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출소 이후 주민들은

유튜브에 여전히 노출 중인 영상물 탓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신의 일상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재사용된다는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의 경쟁 심리를 자극해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더 악질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조두순 출소일 전후인 지난해 12월 10~14일 게시된 해당 영상물들은 같은 해 12월 21일 기준 조회건수가 420만에 달했고, 현재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은 또 다른 유튜브 버에 의해 편집 및 재확산 우려가 되면서 삭제 및 필터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필요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3단계 미션 통과하고 선물 받았어요”

안성시사계절별매장, <랜선 릴레이 퀴즈> 프로그램 성황리 종료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성시사계절별매장이 겨울시즌 SNS 퀴즈 릴레이 이벤트 ‘랜선 릴레이 퀴즈’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랜선 릴레이 퀴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집콕’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행된 이벤트로 썰매장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이벤트는 총 3단계 미션수행(썰매장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팔로잉,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기, 댓글에 퀴즈 정답과 함께 인스타그램 친구 태그하기)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 야외에서 탈 수 있는 썰매와 치킨 기프티콘 상품권을 증정했다. 한 참가자는 “코로나 무기력한 요즘, 썰매장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소중한 삶의 즐거움을 얻었다”며 “썰매장이 휴장중이지만, 비대면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호평했다. 최갑선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작은 즐



거움을 선사해 드리고 싶었다”며 “썰매장 휴장으로 이용은 불가하지만, 비대면 SNS 이벤트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썰매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이벤트인 ‘아무썰매 챌린지’,

‘첨첨 가로세로 퀴즈’, ‘만만한 이벤트’, 랜선 릴레이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해 고객들과의 소통에 힘쓰며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겨울시즌은 휴장중이다.

김남주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시민과 함께 하남다운 평생학습 도시 만들 것”

하남시,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을 시작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착수’

하남시가 올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할 평생교육사업의 체계적 추진·관리를 위한 ‘2021년 하남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계획은 ‘시민주도 스마트 학습도시 새로운 하남’이라는 비전 아래,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거버넌스 다양화, 시민체감 평생학습 실현’을 발전 목표로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간 학습, 지원 학습, 디지털 학습, 시민주도 학습 등 4대 영역으로 해 19개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전략과제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형 일자리 강화 취약 계층 학습지원 및 콘텐츠 개발 기능전환 및 체계적인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기관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다. 특히 시가 최근 완료한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 평생학습 요구도 등에 대해 시민 등을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하남형 평생학습 종합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준비,



올 하반기 오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내 흩어져 운영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 및 사업 등을 통합하는 한편 평생교육기관-공공공간-강사 및 활동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내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언택트 시대를 대비, 비대면 온라인교육 활성화·지역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마을 등 중심으로 한 소규모 학습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한편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정보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고 상용

OTT·SNS 등 다양한 채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시는 하남 뉴로컬 대학, 민주시민 양성 과정, 부서간 협업-하남팔레트,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과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4차 산업시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 중심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며 “시민과 함께 하남다운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2021년 청년정책 공모사업’ 공개모집

평택시는 ‘2021년 청년정책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모주제는 사회·문화·예술 등 전반에서 청년 관련 아이디어나 정책이슈 발굴 및 문제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활동 기반 마련을 통해 청년의 역량강화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원자격은 기존의 비영리 단체·법인 대상에서 3인 이상의 평택 청년 모임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청년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지원유형은 청년중심형과 지역연계형으로 나뉘며 청년 역량강화 중심사업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공헌, 활력제고 사업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주제로 하는 사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자격 적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면접심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2월 중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이며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

김남주기자

2021년 + 청년정책 공모사업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정책

2021. 1. 06(수) ~ 1. 20(수) 18:00까지

지원자격 3인 이상의 평택청년 19세~39세 모임 또는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가 20명 이하인 단체 또는 대표자는 평택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청년모임 | 지원적으로 구성된 청년 모임으로서 선정 후 고유번호증 개설 비영리 단체/법인 |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등 증명서류 제출

공모주제 사회·문화·경제·교육 등 전반에서 청년 관련 아이디어나 정책이슈 발굴 및 문제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규모 사업비 4500만원 ~ 6500만원 내 자부담 지원

사업량 4개 사업

지원범위 사업지역: 흥보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지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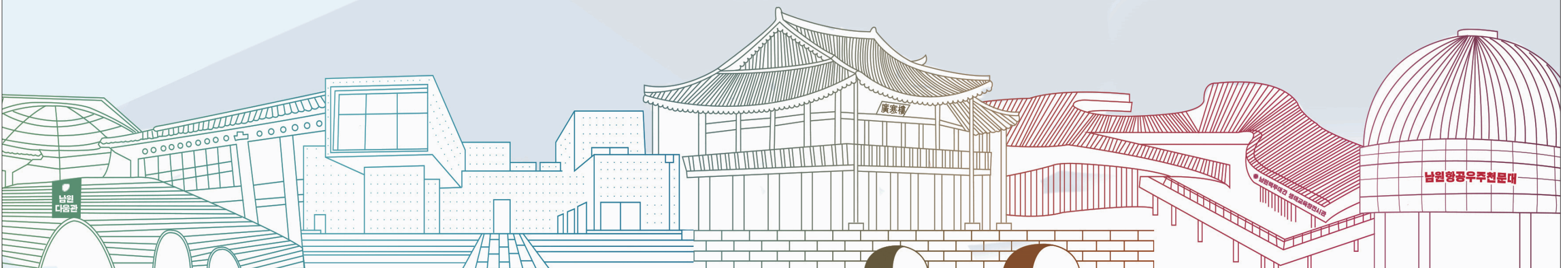
유형	지원자격	활동내용	지원규모
청년중심형	청년모임 1년 미만 활동 비영리단체/법인	- 청년역량강화 중심사업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지역사회 연계형 사업	4502만원 (3개 사업)
지역연계형	1년 이상 활동 비영리 단체/법인	- 지역인연계·물적 지원 등을 연계하여 사회 공헌, 활력 제고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6502만원 (1개 사업)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장소**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031-8024-3077)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36(비전동)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복지정책과 (031-8024-3077)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2021년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

‘코로나 시대, 청소년 행복찾기’ 주제로 1월 15일까지 신청접수

대구시는 지역 청소년의 창의인성 체험 지원을 위해 ‘코로나 시대, 청소년 행복찾기’를 주제로 참신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흐름과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매년 2~30여 개 선정해 지역 청소년의 경쟁력 확보와 창의력 향상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대구시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분야는 자율 및 지정 분야를 포함한 10개 분야다.

자율분야는 ‘코로나 시대, 청소년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건강·직업·가족·인성·사회통합 진강·체육·모험 문화·예술·역사 과학·환경·메이커이며 지정분야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국내 우호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공강콘서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단 운영이다. 공모사업 참여대상은 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한 시설, 비영리 법인·단체, 지역대학 등이며 심사는 프로그램의 창의성, 청소년의 수요도, 지역사회 참여도 등에 역점을

두고 평가해 선정한다.

공모 관련 공고문 및 세부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이다.

한편 대구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중 청소년 국제교류는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상호방문, 홈스테이, 역사명소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히로시마 국제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일본어학과, 연세대학교 국제통상학부에 진학한 사례도 있어 청소년의 진로 결정 및 글로벌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중단될 뻔한 위기도 있었으나, 대구-히로시마 간 학생들이 K-POP 댄스배우기, 히로시마 문화 소개 등을 온라인으로 교류해 양도시의 참여 학생들이 SNS 등을 통해 계속 우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가족·인성·사회통합 분야의 ‘쿠투유’는 각 가정에서 재료 키트를 전달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참



여 청소년과 가족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마을별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8개 구·군 79개 마을에서 참여했으며 이 중 ‘무지개 꽃밭 만들기’ 프로그램은 마을 공원 내 버려진 공간을 청소년들이 직접 꽃밭으로 꾸며 마을 주민들에게 힐링장소로 제공해 마을명소가 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행복·공감 지수 향상을 위해 ‘청소년 공감콘서트’와 라이브 쿠투유·문화체험 등 참신하고 다양한 프

로그램 등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올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과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두가지 방식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특색 있는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선정돼 온라인 수업,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시민이 선정한 2020 구미시 10대 뉴스

시민이 선정한 뉴스 1위는 ‘구미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구미시는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민, 공무원 등 1,700여명이 직접 선정한 ‘2020 구미시 10대 뉴스’를 6일에 발표했다. 이번 뉴스 선정은 2020년 한 해 동안 보도된 구미시 주요 뉴스를 대상으로 1인당 10개까지 다중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지난 달 11일부터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306표가 집계됐다. 시민이 선정한 1위는 1,055표로 ‘구미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차지했으며 2위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확정’, 3위에는 ‘구미시립양포도서관 개관’이 선정됐다. 1위에 선정된 ‘구미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은 2019년에 이어 연속으로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2019년 100억원 규모로 시작해 지난해는 490억원으로 확대 발행했다. 상품권이 전량 소진되고 가맹점 1만호를 돌파하는 등 코로나19로 얼

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밖에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산동면, 읍 승격 승인 시내버스 무료공공와이파이 구축 행정구역 개편 구미국가5산단 에너지센터 투자협약 체결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다시 시작 파이팅 구미 착한소비운동 순으로 선정됐다.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에 밀접한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고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성장, 행정구역의 변경·통합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구미시에 대한 기대감도 엿볼 수 있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2020년 한 해 열심히 달려온 구미시의 발전취를 시민들과 함께 되돌아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생각과 주요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자 마련했다”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올 한 해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삶에 힘이 되어 줄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국악이 있는 풍경_대구 심경’ 시리즈 영상제작

대구 심경과 어우러진 국악 연주 영상 20회 촬영

대구시립국악단은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맞춘 국악의 역할 모색의 일환으로 ‘국악이 있는 풍경_대구 심경’ 시리즈를 기획했다. 시립국악단 단원들이 대구의 여러 명소를 찾아,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국춤과 국악연주 장면을 담아 영상물을 완성했다. ‘대구 심경’ 시리즈는 구암서원, 경상감영공원, 대구향교, 수성못, 성당못, 남평문지 세거지, 울골 마을, 불로동 고분군, 도동 측백수림, 서상고 고택, 이상화 고택 등의 대구 명소에서 촬영 됐다. 연주된 곡은 대금정악, 해금산조, 생소병주, 가야금중주, 거문고산조 등 전통에서부터 창작까지 다양한 국악 곡을 선보였으며 김기무, 소고, 태평무 등의 한 국무용 또한 영상에 담았다.

촬영과 녹음은 대구시립국악단 공연일정과 병행하며 방역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으로 10월에서 11

월 두 달 동안 진행됐다. 한 장소 당 2건의 촬영으로 제작된 영상물은 총 20건이다. 대구시립국악단은 대구 북구 ‘구암서원’에서 촬영한 대금정악 ‘청성곡’과 ‘지영희류 해금산조’ 연주 영상을 1월 첫 주에 대구문화회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으며 매주 약 2건의 영상물을 업로드하며 2월말까지 ‘대구 심경’ 시리즈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현창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맞이하게 된 새로운 시대에 국악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전통예술이 가진 힘으로 여러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갖은 공연 연기와 취사로 인한 아쉬움을 채워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국악단의 역할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연구하겠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포항시립도서관 2021년 온라인 겨울독서교실 운영

초등 학생 대상 온라인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포항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온라인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독서교실은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독서경험과 체험활동으로 책 읽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한 어린이 독서진흥프로그램으로 포은중앙도서관을 비롯해 5개 시립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포은중앙도서관은 초등 5~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감성Talk, 마음Talk 그림책 하브루타’라는 주제로 운영한다. 피아노와 여러 미술활동이 함께하는 그림책읽기를 통해 오감을 사용하는 공감각적 그림책읽기와 창의적인 나만의 글쓰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수강생 모집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모집 중이며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접도서관은 초등 3학년 15명을 대상으로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책으로 마음 채우기’라는 주제로 운영한다. 고학년의 첫걸음을 떼는 3학년, 아이들의 시야 넓히기를 목표로 주제 도서를 통한 습관 플래너, 엔딩북, 등을 직접 만들어보고 나눔의 행복, 함께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다. 영암도서관은 초등 4~5학년 15명을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책이랑

놀작’이라는 주제로 운영한다. 매일 한권씩 주제도서가 있고 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책의 형태, 주제에 따라 다양한 독서법을 경험해본다. 또한 꽃씨심기, 희망라면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까지이며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전도서관은 초등 2~3학년 15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도전 나도 동시작가’라는 주제로 운영한다. 매일 주제 동시 한편씩을 배우고 말놀이 동시, 음식 동시, 생활동시 등 다양한 형태의 동시 짓기를 체험해 동시 시인이 되어본다. 수강생 모집은 5일 오전 10시부터 모집 중이며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해석곡도서관은 초등 1~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꿈을, 희망을 이룬다’라는 주제로 운영한다. 새해에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로 창작, 비트에 맞추어 랩으로 표현해 보면서 간절히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겨울방학 특강이다. 구진구 시립도서관장은 “어린이들의 독서능력 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해 방학마다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각 도서관에서 연령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주제와 독서활동을 마련한 만큼 기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안동시, 코로나19 딛고 스포츠 인프라 지속 확충

안동종합스포츠타운, 반다비체육센터, 안동다목적체육관 본격 추진

인류 역사에 암흑기로 기록될 법한 2020년 한 해는 송두리째 코로나19에 관통됐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한 체육활동에도 타격이 컸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각종 경기 및 대회는 연기됐다. 안동시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육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안동시민운동장 주변에 전국대전이 가능한 1층 공인경기장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동종합스포츠타운’은 총사업비 1,100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부지면적 215,010㎡에 실내전용경기장, 준비운동장, 씨름장 등을 건립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 시설도 조성한다. 올해는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021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안동다목적체육관’은 용상동 구비행장 부지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금년도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

고 전했다. 연면적 3,106㎡에 지상 2층 규모로 유아체력장, 단체운동 공간과 함께 야외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마련한다. 또한 ‘용상야구장 개보수사업’도 금년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3면인 용상야구장이 모두 인조잔디 야구장으로 조성되어 야구동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관으로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되며 헬스장, 재활체력단련실, 문볼장 등이 설치되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이외에도 ‘그라운드골프 조성사업’,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안동체육관 주경기장 관람석 안전헬스설치사업’ 등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금년에 국비 28억원, 도비 7억원을 포



함한 총사업비 155억원을 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체육시설 수요가 증가하면 추경 시 국·도비 등을 추가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도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증가하는 축구인의 요구에 대응해 낙동강 둔치에 축구장 1면을 추가 조성하고 기존 축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시민테니스장은 코트 교체, 배수로 정비 및 관중석 그늘막 설치를 완료했으며 화장실 개보수도 곧 완료할 예정이다.

수상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낙동강 수상레저접안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의 협력이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시비 사업으로 풍산체육공원에 야간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시민들이 축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고 안동체육관 주경기장 조명을 교체해 각종 대회 및 행사 시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확충된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국가낙동강수질안전센터’... 매리에 건립된다

“낙동강 하류 상수원 안전성 확보”

부산시와 환경부의 긴밀한 협의 끝에 국립환경과학원소속의 전문적인 미량유해물질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인 ‘국가 낙동강 수질안전센터’가 매리에 건립된다. 이는 부산시가 실무진과 전담팀을 구성해 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양산천 유역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이 물금취수장에서 발견됨에 따라, 미량유해물질 등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국가 연구기관이 부산은 물론 인근 양산 등 취수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당초 환경부는 경상북도 왜관에 설치된 미량유해물질 센터의 운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설득과 상징성, 효율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매리에 수질안전센터를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는 매리 취수장 내 사택 철거부지를 제공하고 환경부는 국비 70억을 투자해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7번지 일원에 ‘국가 낙

동강 수질안전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매리·물금지역은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덕산정수장을 통해 김해시 및 진해지역에도 일부 공급된다는 점과 양산시 생활용수 취수원 및 울산시 공업용수 취수시설이 위치한 만큼, 하류지역 취수의 중요한 위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왜관지역 낙동강 수질안전센터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해, 산단단지가 위치한 낙동강 하류의 수질 측정 및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류지역에도 별도 전문연구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1,4-다이옥산 검출 사태로 인해 매리·물금 하류인 양산천 유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취수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거동뿐 아니라 하류지역도 감시대상이므로 매리지역에 수질안전센터 건립이 최적지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와 더불어



매리 지역은 수질연구소 등이 위치해 지역대학의 환경연구 인프라와 시 환경연구원을 통한 수질연구 기능 간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그동안 국가기관의 지방설치 시 문제가 되어 왔던 직원들의 생활 여건 및 교육여건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함을 역설한 바 있다. 매리지역에 수질안전센터가 설치되면서 왜관 센터와 담당 지역을 나눠 중상류는 왜관 센터가, 하류는 매리 센터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

행은 “매리지역에 미량유해물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전문 국가기관이 설립·운영되면 우리시는 물론 김해·양산·울산 등 인근지역 취수원도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의 연구 기능과 지역대학의 연구기능을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향후 매리 수질안전센터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미량유해물질 연구기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창원시, 25일까지 ‘민주주의전당’ 건립 설계공모 실시

4월 1일 당선작 선정 예정...1등 당선자에게 설계권 부여

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창원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상징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서의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사업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주의전당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2번지 일원 대지면적 9,000㎡ 연면적 8,300㎡ 규모의 전시실, 수장고 및 민주시관, 민주홀 등을 갖춘 시설로 건립되며 건립 총사업비는 303억원이다. 시는 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가 만나는 대표적 상징공간으로서 민주성지 창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기본방향을 제시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일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1등 당선자에게는 설계권을 부여한다. 참가등록은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은 “설계공모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고찰하

‘빛의 향연’ 함양 대봉캠핑랜드 경관조명공사 결실



더욱 업그레이드된 함양대봉캠핑랜드 국내 최고의 힐링형 휴양시설을 꿈꾸다

국내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내 힐링형 숙박시설인 대봉캠핑랜드가 더욱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 화제다. 함양군은 대봉캠핑랜드 내에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경관조명시설이 내외 호평 속에 무사히 준공을 마쳤다고 전했다.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산1-1 대봉캠핑랜드 부지 내 시설물에 총 9억여 원의 사업규모로 오밀조밀 조성된 경관조명사업은 15동의 숲속의집을 비롯해 빛빛놀이터, 종합놀이시설인 숲속놀이터, 데크산책로 등을 따라 형형색색으로 밤을 장식하는 야간 이벤트 조명을

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조명은 점으로 선으로 시간에 따라 다양하고 조화로운 형태를 이뤄내 때로는 때로는 듯한 반딧불이 군집으로 때로는 빛의 흐름이나 불꽃의 형태로 보이기도 하는 등 고즈넉한 캠핑랜드의 밤분위기를 더욱 운치있게 만드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봉산휴양밸리 내 전체 사업 추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소창호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봉캠핑랜드 운영이 중단되어 그간 아쉬움과 성원을 비치신 내외 관광객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이듯 운영 중단 기간 동안 대봉산을 찾는분들께 좀 더 멋지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준공 소감을 전했다. 대봉캠핑랜드 경관조명시설은 오는

설날전까지 일몰부터 1~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 시설 준공에 따른 설비 안정성 점검 등 시범운영 기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함양대봉캠핑랜드는 지난해 7월 문을 연 후 약 한달여간 운영을 하면서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비록 대봉캠핑랜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22일 이래 계속 운영을 중단한 상태지만 중단기간 동안 부족한 시설물 보강, 경관 업그레이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코로나19 상황이 누그러져 다시 재개장을 하게 되면 탐방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최만식기자

부산시, ‘갈맷길 여행자 수첩’ 제작

시민들이 갈맷길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갈맷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수첩이 통합된 ‘갈맷길 여행자 수첩’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수첩의 샘플을 제작해 오는 3월까지 갈맷길 안내보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개선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4월까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여행자 수첩을 보완해 완성한 후 제작해 구·군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여행자 수첩의 샘플에는 갈맷길 여행자 정보, 교통정보, 도보인증 방법, 갈맷길 1~9코스, 완보 기록과 인증서 등이 담겼다. 부산시는 지난해 갈맷길 안내지도 8,000부와 인증수첩 1만부를 제작해 배부한 바 있으며 올해는 갈맷길 이용 시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통합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다.

시는 걷기 좋은 갈맷길, 미래의 갈맷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갈맷길 전 구간에 걸쳐 잘못된 안내표지판, 이정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안내시



설 및 편의시설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시민들이 갈맷길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는 물론 유용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세계 속의 갈맷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시민이면 한 달에

한 번, 매월 11일은 생활 속 걷기를 실천하자는 취지를 알리고자 두 다리를 행사화한 ‘11’이란 날짜에 명칭과 의미를 부여해 ‘워킹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워킹데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전북형뉴딜,그린뉴딜 1번지생태문명수도 비전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원 투자, 일자리 21.8만개 창출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 디지털 종자·식품산업 혁신 플랫폼 등 4차산업혁명 대비와 기후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를 정책 골자로 하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이 본 모습을 드러냈다.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는 7일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9대 분야 27개 중점과제, 8대 대표 브랜드 사업을 담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2550 실현, 디지털산업 2배 성장, 일자리 21.8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 및 사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명을 대비하는 디지털 전북 기후변화 대응으로 대도약하는 그린전북 사회안전망 강화로 따뜻한 행복 전북이라는 3대 정책방향 속에서 '9대 분야의 27개과제'와 전북 성장의 모멘텀이 될 '8대 대표브랜드 사업'을 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한 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2021년 국가예산 8조원시대 개막 등 도정을 위해 숨 가쁘게 뛰어왔다"며 "시대적 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뉴딜' 정책으로 전라북도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임성진 교수는 "전북형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미래를 열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발

전 전략이다. 이번 종합계획이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도출한 '9대 분야의 27개 중점과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 강화의 3대 정책 방향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북 경제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확산시킬 구상이다. 25년까지 총사업비 3조 8,689억원이 투자되며 일자리 4.9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D.N.A 융합 전북경제 스마트 농생명밸리 2.0 디지털문화·관광 실감형 콘텐츠 안전하고 더 편리한 전북 도민의 삶터라는 4개 분야로 나누고 13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전북의 특산품 그린뉴딜은 전북형 뉴딜로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 그린뉴딜 1번지로 거듭난다는 방안이다.

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 8,632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5.2만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 1번지·에너지 전환 확대 그린모빌리티 산업전환 전년산하 생태백신·그린바이오 3대 분야로 설정하고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전북형 뉴딜 인재 양성과 디지털 돌봄·포용의 2개 분야, 4개 핵심과제에 '25년까지 1조 479억원 투자,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의 지역적 특장점을 반영한 8대 대표브랜드 사



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한국형 뉴딜 대응추진단을 구성해 한국형 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에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9월 실무추진단 회의에서는 215건 4조 7,028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50건, 4조 2,872억원의 사업을 추가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실·국·원별 협의체는 실행력을 갖춘 실·국·원별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도 내외 뉴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시·군과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제안 공모와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정책 방향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경북도 등과 협력해 발광반도체·조광역 프로젝트인 동서내륙경제벨트 사업 등도

종합계획에 담았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형 뉴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보완해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북형 뉴딜 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당위성 등 논리를 보강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시·군 자체재원사업과 초광역사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려고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대학 등과 꾸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도민 의견도 계속 수렴해 전북형 뉴딜정책을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연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와 4차산업혁명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북형 뉴딜에 담았으며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라북도'가 되도록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진도군 인구 3만1000명 회복...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한 몫

공무원 노력·군민 협조 결실... 다양한 출산·전입장려 지원시책 마련

진도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내 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법군민 운동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말 3만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였던 진도군 인구가 1월 7일 현재 다시 3만1,000명을 넘어섰다.

진도군은 지난해 10월 인구가 3만233명으로 3만명이 무너질 위기였지만 올해 1월 초순 3만1,227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3만1,000명 선을 회복했다. 진도군 인구는 1968년 최대 11만명에 달했지만 취업 인구 유출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를 증가로 5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신하고 법군민 차원의 참여만이 인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섰다. 인구 3만명 회복에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협조가 큰 몫을 했다. 진도군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생활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기관·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했다. 우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전입 캠페인을 하면서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늘었다. 기관·사회단체·기업체 등을 방문해 전입할 경우 다양한 혜택 등을 알렸다.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기관·단체·기업체에 임직원의 전입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군의 이런 노력을 이해한 기업·

기관 단체의 직원들이 동참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275명이 전입했으며 지난 1991년 이후 29년만에 주민등록 인구수가 증가했다. 진도군은 지속적으로 인구 3만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아직 미전입한 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 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쳐 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 입 장려금 인상과 마을별 전입 운동 포상제 등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도군은 이러한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군내면 신기리 귀농이주단지, 재외교포 귀향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진도군이 보유한 우수한 해상풍력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도 풍력관련 연관사업 등 미래유망사업을 적극 유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LH 청년행복주택건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청년 공동체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결혼·문화·일자리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인구는 도시 경쟁력의 기초이자 지역발전의 동력이다.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인구감소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군민 모두가 인구 증가를 위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출향인들에게는 귀향도 적극 권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양호/기자

임실군, 2021년 옥정호의 마법이 시작된다

민선 7기 핵심기치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 가시화, 제2기 에코뮤지엄사업 본격화



임실군이 신축된 새해 전라북도의 보물인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맞을 올린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의 가시적 성과를 올해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섬진강 르네상스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를 중심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섬수산과 반려동물거점화를 연계해 임실군의 천만관광의 기틀을 다지는 균형 운영의 핵심기치다.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은 옥정호의 친환경적인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명품 생태관광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이미 군은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을 통해 에코누리캐프스와 봉어섬 에코가든, 에코투어링 루트, 감성투어로드 조성 등 옥정호 주변을 도보로 여행하는 물 문화 둘레길 7.3km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봉어섬 2만평 부지에 방문자 센터를 건립했으며 소나무와 구절초와 송엽근, 철쭉, 수국 등 사계절 수목을 식재해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옥정호 봉어섬을 잇는 긴출렁다리, 4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짚라인과 스카이 워크 등이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옥정호에 구름처럼 몰려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지

를 조성하고 운송요차로 개선과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연계해 옥정호의 수변 및 주변 지형을 활용한 체류·체류형 관광지 개발과 산악레포츠 체험 기반시설 조성 및 수변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제2기 사업을 본격화한다. 노후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진흥 도모를 위한 개발사업 등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250억원을 투입한다.

산악레포츠 체험시설에 135억원을 투입해 자연친화형 체류공간을 구축한다. 또한 수변 관광기반시설로 테마공원과 캠핑장, 수변데크,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등에 115억원을 투입해 섬진강을 활용한 수변·생태·산림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섬진강 댐 건설이후 반세기 넘

게 개설되지 않은 미완의 도로인 옥정호 수변도로도 댐주변지역 친환경보전 및 특별법이 적용돼 연차적으로 완공될 전망이다. 군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임실치즈축제를 비롯한 사계절 축제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반려동물 테마관광지를 잇는 명품형 관광로도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는 지난 1965년 섬진강댐이 건설된 이후 반세기 넘게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아픈 호수였지만, 이제 임실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사계절 축제와 어우러져 옥정호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호수로서 호남권의 유일한 체류 및 체류형 관광지로서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장흥군 정남진 장흥문화관광기행 특구 재지정



장흥군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남진 장흥문화관광기행 특구' 재지정을 받았다. 장흥군은 2008년 '전국 최초 문화기행특구'로 지정되어 2011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문화관광기행 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특구의 위상 정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설명회, 중앙부처 협의 방안, 현장 확인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2023년까지 597.571㎡에 365.02억원으로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국문학사상 가

사문학의 발원지로 이철준, 송기숙, 한승원 등 걸출한 현대문학 작가들을 배출했으며 국내 유일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인 해동사,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명량해전의 시발점인 회령진성, 정경달 장군을 기리는 반계사 등 유서 깊고 방대한 문학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장흥군은 기반 정비사업, 문화특구프로그램 운영, 문화특화협력 네트워크, 한국문학특구 포럼 등 특구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4개 분야 12개 특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왔다. 이번 기간 연장 승인으로 제와 장 공방개선사업, 방촌 실감콘텐츠

사업 등 4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해 장흥군의 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경달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문화관광기행 특구 지정이 연장됨에 따라 장흥군의 문화관광산업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천관산 문학공원, 천관문학관, 이철준 문학제, 문학특구포럼 등 다양한 문학자원이 장흥군민뿐 아니라 전 국민 곁에 형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순천시, 순천 4.0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개최

'2021 NEXPO in 순천'의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활동

순천시는 5G·AI 등 첨단기술 중심의 미래 삶을 한발 앞서 경험할 수 있는 4차산업박람회 '2021 NEXPO in 순천' 4.0 서포터즈 10명을 선발해 지난 6일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활동하며 4차산업박람회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각종 SNS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서포터즈 발대식은 '2021 NEXPO in 순천' 박람회 안내, 서포터즈 활동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추후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오프라인 발

대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서포터즈 모집을 위해 4차산업혁명과 관련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온라인 소통에 능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다. 대학생, 자영업자, 기자, 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50명이 지원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심사 결과 최종 10명의 서포터즈를 확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래 첨단산업에 관심있고 SNS 운영에 능숙한 서포터즈들이 만들어 낼 콘텐츠가 기대된다"며 "서포터즈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남원시,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남원시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시켰다.

검사주기는 2년,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며 검사항목은 배출가스, 소음 등이고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며 전기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대형 209대, 중형 3,057대, 소형 3,194대, 경형 627대 총 7,087대로 이중 올해 검사대상은 228대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만료

일의 다음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위반일수로 산정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순자 환경과장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에 따라 생활속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철/기자

전남소방, 지난해 소방출동 '도민 생명보호' 한몫

2020년 소방통계...화재·사상자 감소, 인명구조 증가

전남소방본부가 지난 한해 소방 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57만 6천 458건의 신고를 접수해 28만 6천 873건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분야별 현장 활동은 화재 2천 472건을 비롯 구조 3만 5천 877건, 구급 7만 5천 258건, 오인신고·미이송 등 기타 17만 3천 26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된 총 9천 215건의 화재신고 중 실제 화재는 2천 472건으로 사망 22명, 부상 98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29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과 비교해 화재 173건, 사상자 4명이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26억 6천만원이 증가했으며 공장 및 창고시설 등 산업시설의 피해가 주요인으로 확인됐다.

화재원인의 경우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1천 3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536건, 기계적 요인 241건, 원인 불명 화재 180건, 기타 139건 순이다. 아울러 지난해 3만 5천 877건의 구조출동에 나서 4



천 275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총 건수 중 자연재해 등 생활안전구조 출동이 1만 9천 401건, 교통·승강기 사고 등 일반구조 출동은 1만 6천 476건을 기록했다. 2019년 대비 출동은 261건, 인명구조는 27명이 증가한 결과로 주된 요인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남소방은 지난해 총 7만 5천 258건의 구급현장에서 7만 7천 148명의 환자를 응급처치 후 이송했으며 구급 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도 응급처치·의료지도 등 소방안

전서비스 3만 7천 547건을 위급한 도민에게 제공했다. 2019년과 비교해 구급출동은 2천 838건, 이송환자는 6천 359명이 줄어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대외활동 자제가 소방활동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부주의 등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소방대책을 세워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귀농 창업비용 고민이세요? 보성군에서 최대 3억원 용자 지원

연리 2%대로 최대 7천5백만원 빌려주는 주택 구입 자금 신청

보성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1년 귀농 농업 창업 자금 지원과 귀농인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2월 5일까지 거주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전업 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고 보성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세대주이다. 보성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업 창업 비용으로는 최대 3억원이 용자 지원되며 농기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 및 신축 비용은 최대 7천 5백만원



까지 연리2%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귀농인 창업 자금 지원과 주택 구입 지원 사업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

사하고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맞는 귀농 지원 사업들을 적극 활용해 영농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청정바다 완도 수산물, 수출브랜드 대전서 '대상·은상' 수상

대상-㈜해청정의 다시마 국수, 은상-㈜완도사랑S&F의 전복 볶음밥

완도군은 해양수산물부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개최한 '2020 수산물 수출 유공자·브랜드' 대전에서 완도군 소재 수출기업인 ㈜해청정과 ㈜완도사랑S&F에서 각각 대상과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수산물 수출브랜드 대전'은 자체 전문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해청정의 '해조미인'은 다시마 국수로 해외에서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조류를 활용한 저칼로리제품이다. 완도산 다시마를 활용한 이 제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기 속에서도 지난 9월, 완도군 수산 HMR 화상 수출상담회에 참가, 말레이시아 라왕에 제품을 수출하며 첫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어 11월에는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수출상담회를 통해 독일 수출 길에 오르는 등 다시마 국수는 건강식을 선호하는 전 세계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은상을 수상한 ㈜완도사랑S&F은 '바다는 웰빙이다'는 브랜드처럼 청정바다에서 생산한 수산물로 만든 전복 가공 식품



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전에서 완도산 참전복이 들어간 전복 볶음밥 3종은 가성비가 탁월한 가정 간편식으로 평가단의 주목을 받았다. 전복 볶음밥은 지난 9월 미국에서 바이어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수입 의사를 밝힌 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완도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군 수출 기업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

출업체와 어업인들의 노력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수산물 수출 유공자·브랜드'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대한민국 38개 수출업체에 수출 공로탑을 수여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영율/기자

과거 3년간 실패 후 관내 상주 전문 이식사 인력풀 최대 활용, 높은 성과 보여

장흥군은 OPU를 통해 수정란 이식된 한우가 지난 4일 첫 혈통 송아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OPU 수정란 이식은 고능력 암소의 난자를 채취해 우량 정액과 수정된 생식 세포를 관내 한우 농가에 이식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11월까지 150두를 이식해 76두가 수태되어 전국 평균을 상회한 50%의 이식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3농가는 70%가 넘는 우수한 수태율을 보였다. 장흥군은 일찍이 2010년부터 3년간 이식 사업을 시행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식을 한번 실패할 경우, 임신우의 공태 기간이 길어져 농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 3년간 실패한 전력이 있어 수정란 이식에 대한 농가 인식 또한 좋지 않아 지난해 추진 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컸다.

그러나 지난해 추진한 수정란 이식 사업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살려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와 관내 인력풀을 최대 동원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채취된 신선란, 거리적으로 가까운 이점, 관내 상주하는 전문 이식사의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해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 OPU 체외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소는 혈통 한우로 등록·



관리되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수정란 이식으로 일반 인공 수정 개량 속도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관내 한우 개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된 소는 관외로 반출하지 않고 장흥군 관내에서 계속 관리된다. 장흥군은 올해도 수정란 이식 사업을 위해 3천 만원을 확보했고 수정란 이식 장려를 위해 추가 예산을 더욱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말 현장 심사를 통해 농가 선정을 마쳤으며 농가 전문 교육 후 1월 말부

터 바로 수정란 이식 사업에 착수한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수정란 이식은 단기간에 한우 개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관내 명품 한우 생산을 위해 한우 개량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문 이식사인 김점중 씨는 "수정란 채취 기술, 수정란 이식 노하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가의 사양 관리가 최대 관건이다"며 "한우 개량을 위한 농가의 참여와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영율/기자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

청양군, 올해 농산촌 개발사업에 82억 투입

청양군이 올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농산촌개발 분야에 82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까지 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해 교육·복지·문화·경제 기반을 다졌다.군은 각 읍면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양읍 80억원, 남양면 60억원, 화성면 55억원, 비봉면 56억원, 정산면에 70억원을 투입했으며 청양읍 청수1리와 화성면 화강리 등 총 6개 지구에 30억원을 들여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을 추진했다.올해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원 장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3억원 청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6억원 목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6억원 대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억원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 7억원 미당1리 취약지역생활환경개조사업 5억원 등 11개 지구에 대해 종합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생활편의·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뒤편어진 거점기능을 강화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또



한 군은 300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가 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농촌협약은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전반에 투자하는 지원방식 또는 제도를 말한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우리

군은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가 되기 위해 치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3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군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영월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영월군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신청자격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 하는자로 신청년도 기준 만65세이하이고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경종분야, 축산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은 주택구입 및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선발된 귀농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농업창업자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사업신청은 2021년 1월 5 ~ 2.4일까지 영월군농업기

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1000만 관광객 시대 함께 열겠습니다"

제천시-코레일관광개발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이 복선전철 개통과 동시에 발 빠르게 손잡으며 본격적인 철도관광 활성화에 착수한다.제천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7일 제천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자리에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코레일관광개발 정현우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만 배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선 복선 전철 기반 수도권, 대도시 관광 수요 유입 마케팅 추진 KTX-이음 포함 철도 연계 제천 관광 상품 개발

운영 제천시 관광자원 개발 및 운영 관련 협력 등이다.제천시의 특별한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KTX-이음을 포함한 철도 교통 인프라와 제천이 가진 자연, 휴양, 레저 등의 문화콘텐츠와 미식관광을 접목해 제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추진하며 관광택시, 시티투어와의 연계 상품도 운영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철도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는 제천의 관광산업과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으로 철도 도시 제천의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하며 KTX-이음 및 철도교통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정현우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열차

와 제천시 간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제천시 1000만 관광객시대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공격여행 콘텐츠 발굴과 안심여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제천시는 2019년 관광객 960만을 기록하며 1,000만 관광객달성을 목전에 두었으나 2020년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여파로 관광객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코레일관광개발과 제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준비 중인 철도 힐링 관광상품은 뷰티·스파·자연·숲치유 힐링·명상 한방 등 4가지 웰니스 테마로 구성되며 여기에 제천의 미식관광을 추가한 특별 관광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승용차 및 대중교통 마일리지 효과 '뚜렷'

승용차 및 대중교통 마일리지 사업 운영 결과 차량 1대당 평균 3,387km 감축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차량 부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승용차 및 대중교통 마일리지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춘천시정부는 2020년 마일리지 사업을 첫 도입,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사업을 추진했다. 마일리지 사업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만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실천 운동이다.승용차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와 운행거리를 계산해 산출된 감축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대중교통 마일리지는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차 부문 357명, 대중교통 부문 156명, 승용차·대중교통 부문 87명 등 600명이 참여했으며 감축 실적이 있는 73명에 대해 450만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했다.승용차 부문을 살펴보면 기준 주행거리는 74만1,327/km, 운행 거리는 52만1,143km로 감축 거리는 22만184km다.일반 가솔린 차량의 경우 1km당 CO2 배출량이 192.2g인 점을 감안하면 4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대중교통 마일리지 신청자는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252회로 한 달에 28회 정도의 대중교통 이용했다.이처럼 효과를 입증한 만큼 시정부는 올해도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영민기자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 보호 전담요원 배치

공주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시는 올해부터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했으며 자체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통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이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실시하고 응급치료, 분리조치 등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만일 조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함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또한, 위기아동 예측 공공시스템 통보 대상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만3세아 중 교육기관 장기 결석자, 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해 교육시설,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공주경찰서와 공주교육지원청,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동 e행복아동행복지원담당자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정보연계협의체를 가동, 아동보호에 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했다.손애경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서천군,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본격 운영

서천군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이달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수렵면허증을 취득한지 5년 이상 된 28명의 전문가를 선발해 운영한다.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 접수 즉시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전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멧돼지 포획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부터 서천군 환경보호과는 포획 시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방탄복, 방탄모, 야간투시경을 피해방지단에



지급했다.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주민들은 포획활동 시 발생하는 총사리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등산 등 불가피하게 산에 출입할 경우에

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아산시보건소,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아산시는 연일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겨울철, 한파지수의 빈도와 강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올해 2월 말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한랭질환 감시체계는 한랭질환 발생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한파에 따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된다.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으며 면역력이 낮고 온도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주의해야 한다.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가벼운 실내운동 및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및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 출근 전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급격적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등 따뜻한 옷 입기 등 건강수칙을 지

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가수 윤수일 산청군에 사랑의 머플러 100장 기부

정병현 前재창원산청항우회회장도 동참

가수 윤수일과 정병현 비즈피어 회장이 6일 산청군을 찾아 사랑의 머플러 100장을 기부했다.

윤수일 씨는 “지난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던 인연으로 머플러를 전달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현 회장 또한 “전 재창원산청군항우회장으로 고향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진주시 자전거협회 박명래 사무국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 유공

진주시 자전거협회는 사무국장 박명래 씨가 지난해 말 2020년 자전거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개인 부문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명래 사무국장은 1차 서류심사와 공개검증, 2차 심사 평가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간의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그는 2009년 4월 진주시 자전거협회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오랜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진주시의 저탄소 도심 녹색환경 조성과 자전거 행사 추진, 예방 캠페인 전개, 자전거 이용 붐 조성 등으로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문화 정착에 힘써 왔다.

또한 사무국장으로서 읍면동 자전거 동호회, 여성 자전거 투어단 운영,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대행진, 대학생 자전거 국토대장주,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 등의 활성화와 진주시의 친환경 자전거 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확충 등으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 자전거 중심의 이용문화를 확산시켜 남녀노소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로 출·퇴근, 장보기, 나들이 등 생활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표창을 수상한 박명래 사무국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즐기며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각종 행사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 진주시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동북목장 원유국씨 청정축산 환경대상 수상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소재 동북목장이 2020년 농협 경제지주에서 선별하는 제3회 청정축산 환경대상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해 축산농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정축산 환경대상 선정과정은 객관적인 신뢰를 위해 정부, 학계, 환경단체 등 축산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에선, 현장평가, 최종심사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본 상의 의미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이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축산인 모두가 솔선수범해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친환경 축산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농가의 노력과 관심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농장주인은 축산농가가 매일 농장을 쓰고 닦고 하는 부지런함을 평소 생활화해 야 농장이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농가 스스로 환경친화적인 농장 만들기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성욱기자



로만시스(주), 함안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 기탁

로만시스(주)는 지난 6일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임봉채 대표는 “함안군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함안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근제 군수는 “후원해주신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철서일반산업단지 내에서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을 제조하고 있는 로만시스는 지난해에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한 바 있으며 방글라데시 등에 기관차를

남궁영기자

보훈무용예술협회 구미시지부 온라인 창립총회 및 오주신 지부장 취임

부지부장 최순주 구미 서울무용학원 원장 취임, 사무국장 박지현 선임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구미시지부가 출범했다. 5일 오후 1시 창립총회 및 취임식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 및 취임식은 발레를 전공한 박지현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총회에서 임원 만장일치로 오주신씨가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구미시지부의 초대 지부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취임한 한국무용을 전공한 오주신 지부장은 前경북도립무용단 단원, 쉐주니어 무용단 주신 단장과 오주신무용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1년 대한불교조계종 문경 관음사에서 개최한 한국전쟁 70주년 평화산사음악회 오픈닝 등의 보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무용·안무가이다. 부지부장에는 구미 서울무용학원 최순주 원장이 취임했다. 최 부지장은 대구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약력과 함께 지역내 꾸준한 봉사 및 현대무용가로 정평이 나있다. 고문에는 전)제주국제대 조성빈 특임교수가 맡았다.

또한 사무국장 박지현, 감사 변지영, 유연수, 상임이사 조선희, 김경숙,



이복배, 이사 홍지연, 전소연, 장민지, 박민우, 이선경, 박채윤, 김가경, 김정하, 도지원, 안주연, 회원 황지연, 이연지, 임유정, 변현정, 박선진, 김여진, 최예원, 변현지 등 구미지역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의 무용가가 대거 참여해 임원과 회원으로 선임됐다. 이날 취임한 오주신 지부장은 “보훈무용예술협회 경북 구미시지부가 앞장서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지역무용예술의 희생과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개발과 제안을 선도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포천시 영진산업(주), 장학기금 기부로 따뜻한 온기 전해

지역인재 육성과 더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全] 생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한 포천시교육재단에 신축년 새해를 맞아 장학기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포천시교육재단은 지난 6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영진산업(주)에서 장학기금 1천2백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장학기금 기탁은 영진산업(주)임원들을 비롯해 전 직원이 십시일반으로 매월 1백만원씩 총 12개월간 기부를 이어나갈 예정이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이미자 대표는 “임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기탁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윤국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큰 금액을 기탁해주시기로 결정하신 영진산업 대표와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장학기금이

포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옥천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최종 선정

옥천군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 사례 10건을 대상으로 1차 실적검증, 2차 국·실·과·소장이 평가하는 사전심사, 3차 현장 발표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3명을 선발했다.

심의결과 ‘최우수’는 초기 건축형태 증명의 어려움에도 옥천 이지당을 ‘서당’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이자 군내 두 번째 보물 지정에 기여한 강병숙 주무관이 선정됐다. ‘우수’는

향수OK카드 발급을 추진해 가입자 수 1만명 돌파 등 가맹점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박양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관련 규정 및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어려움에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완벽한 대응으로 옥천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된 분리막을 타사 제품으로 교체에 성공한 이해란 주무관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선발된 3명은 성과급 최고 등급

과 특별휴가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군은 상반기에 4명을 선발한 데 이어 이번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2021년에도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군민 지향적인 적극행정 문화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로 전하는 2021년 마음방역

아트아시아, 오프나루축제로 여주 문화예술 가치의 무한한 가능성 발견

여주세종문화재단이 2021년 여주시 문화예술 방향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기 위한 문화예술 마음 방역 시리즈를 준비하고 희망찬 신축년을 열어간다.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는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코로나 블루 극복 방법이 햇볕 잘 쬐기와 심리치료를 도움받기 등과 함께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음 치유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새해 펼쳐갈 사업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여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와 단체를 지원하는 여주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올해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여주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전문예술작가 지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청년 예술가 활동 지원 시민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지역특화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역량강화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으로 각 부분별 지원금액 및 수혜단체를 확대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친숙함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세종국악당을 활용한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교과서에서 나온 예술수업', '시민예술학교'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0년 7,800여명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자동차영화관이 올해에는 더욱 다양한 영화와 테마가 있는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2021년 자동차영화관은 5개 이상의 시즌을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는 특히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고전영화와 우수 독립영화 등으로 구성해 보다 풍성하고 감동적인 작품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면사업과 비대면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했던 '어르신 그림책 만들기 사업'은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개개인의 역사를 담아내는 '역사를 담은 나의 일상 이야기'를 주제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지난 해 여주의 숨어 있는 이야기를 발굴했던 '여주문화사진 공모전'도 2021년에는 테마를 달리해 진행되며 어르신의 삶을 체득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여주 어머니들 이야기'와 '여주시민 생활사 이야기' 등이 추진되는 등 여주와 여주시민들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담아낸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으로 여주지역의 문화발전을 견인하게 될 기초연구분야 사업도 활발히 진행된다. 여주 예술사 발굴 및 기록화 사업, 여주 설화수집 및 간행, 여주 5일장 자료수집과 간행, 옛 문헌과 그림 속 숨은 여주 이야기 그리고 여주 문화예술자원 전수조사 등과 함께 각 사업의 기초연구결과를 종합해 여주의 옛 자료와 현재의 모습을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여주문화 기초연구사업들은 여주 문화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학술행사는 최근 지역적, 사회적 인 분야에서 한국어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 등 한글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기초로 하는 학술대회와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청심루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 그리고 21세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의 역사적 사안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두 해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글날 학술대회는 2021년에는 21세기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과 한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기초로 한글의 세계화와 그 우수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2021년 학술행사를 통해 여주의 과거부터 근현대사를 함께한 청심루의 의미와 현시대의 시각에서 문화예술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여주의 역사적 인물과 유적 등 정체성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명성황후생가유적



지에서는 2021년 문화예술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전통자수 교육프로그램과 명성황후기념관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며

여주시민과 관람객을 맞는다. 한국전통자수 교육프로그램은 규방공예 하나인 한국전통자수를 소개하고 직접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라도 한국전통자수 기법을 익히고 작품 하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아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으로 4회를 맞은 명성황후기념관 박물관대학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인 '의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추쇄도감의궤', '장경공연건도감의궤' 등 평소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의궤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조선시대 사회상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명소를 거둬나기 위해 명성황후생가유적지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어서 관람객의 발걸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여주시가 만든 야심작인 뮤지컬 '세종, 1446'이 지난 해 온라인 여주공연에 조회수 16만회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하남, 익산 등에서 전국 투어공연을 하고 비대면 온라인 공연도 계속한다. 특히 2021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을 통해 국·공립 우수공연으로 선정돼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콘텐츠 시대를 맞아해 온라인공연도 강화할 예정인데 여주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여주지역 학생들에게 '세종, 1446'의 공연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도시 여주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여주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라인업으로 선보이는 프로젝트인 랜선국악당을 지속 운영한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수한 공연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 실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여주 읍면 단위를 찾아다니며 여주시민을 만났던 동네방네 음악회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것과 같이 새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비대면 공연과 대면 공연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국비 지원받는 각종 우수공연 유지를 통해 여주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진행한 '빈집 예술공간 #1'과 더불어 올해에는 '빈집예술공간 #2'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조성한 빈집 예술공간 #1과 더불어 새로운 빈집 예술공간 #2를 추가 조성해 문화예술공간 부족을 메워간다. 빈집 예술공간 #1은 2020년 9월 개관해 4회의 기획전시를 열며 한글시장을 방문한 시민 및 외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과 좋은 반응을 얻었

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발전과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사

취하고자 '명성황후 숭모제'가 진행된다. 2021년 여주세종문화재단

업인 '마을미술 프로젝트'도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가남읍 금당1리, 오학동 오학1동 등이 선정돼 벽화 및 조형물로 마을모습 살기 좋은 마을형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들었다. 재단은 지난해에 진행했던 아트아시아를 2021년에도 참여한다.

지역예술인 및 작가들의 활동영역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청년작가와 신작위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여주예술의 가치와 미래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0년 '어반플레이크'라는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4일간 진행된 아트아시아 페어는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과 활동영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아트아시아 페어 여주관을 기획·운영해 예술작품 판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주 도자기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여주돌'은 현재 90여개 도예업체의 제품 800여점이 등록돼 운영 중이다. 재단은 향후 '여주돌'을 공예품과 농·특산물, 중소기업 제품까지 입점하는 지자체 종합 쇼핑몰로 확장 운영할 뿐 아니라 다양한 우수 제품 홍보와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으로 인지도를 높여가며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단은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차분히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대외적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축제와 문화행사도 지역민과 외래방문객에게 지역 문화 향유의 장을 선보이기로 했다. 남한강을 바라보는 신록사관광지 일원에서 천년 여주도자기의 맥을 계승해 문화 발전의 꽃을 피우는 '여주도자기축제'와 과거 한양으로 특산품을 진상하던 조포나루터를 재현해 우수한 여주 농산물을 주제로 풍년농사를 자축하고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여주오프나루축제'가 개최된다. 여주도자기축제는 3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축제로 천년 여주도자기의 맥을 잇는 도공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홍보 및 판매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어느덧 성년이 넘은 여주오프나루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0-2021 문화관광축제'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주도자기축제의 3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간 성과를 조명할 수 있는 '여주도자기축제 백서'도 발간해 축제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세종대왕릉인 영릉에서는 세종의 탄신을 기념해 성덕과 위업을 숭모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세종대왕 숭모제'가 진행된다. 10월 한글날에는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해 한글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기리고 한글도시 여주로서 그 위상을 높이는 '한글날 문화행사', 11월 명성황후 생가에서는 명성황후 탄신을 기념하고 올바른 국모상 재정립 및 역사적 인식을 고

은 문화관광도시 여주로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 발굴 공모전과 각 12개 읍면동의 길과 농·특산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조사와 품평회도 추진한다. 여주 지역 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명소를 찾고자 '여주 사진찍기 좋은 곳 공모전'이 진행된다.

문화유적지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 내 생태환경을 가진 자연적 자원이 배경이며 여주시민과 외래방문객 등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전으로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 유도와 관광자원 발굴에 목적이 있다. '길'은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콘텐츠의 원천 소재로서 무궁한 잠재력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역 삶의 방식과 역사를 담고 있는 각 읍면동 길의 가치를 연구하고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고자 '여주 12개 읍면동 길 스토리텔링' 연구를 진행한다.

2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화로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더한 문화도시 조성이 목표다. 최근 각 지역에서는 농산물과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전환되는 가운데 재단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문화 발굴을 위해 '여주 오프나루' 및 '전통문화 품평회'를 열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 조명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품평회에서 선정된 상품은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여주오프나루축제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주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창립한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21년 재단 체계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동반하는 문화경영 기반 견고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중심 교육훈련으로 시민의 문화상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관과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환류하는 재단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온라인 연수제도 발굴과 운영을 통해 최근 코로나 19 상황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와 선순환되는 조직문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2021년 재단의 발걸음은 지역문화 구술사업과 여주 문화예술 DB사업, 문화예술 연구모임, 여강길 이야기, 전통문화 품평회 등 여주 고유의 이야기가 귀 기울이는 사업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여주의 문화예술생태계 보호를 위한 재단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대체로운 문화예술생태계를 가꾸어 여주시민의 마음 방역을 책임졌던 여주세종문화재단 김진오 이사장은 "문화와 예술은 시민의 행복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복지다. 2021년에도 여주 문화예술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힘쓰며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이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광진구, 코로나 스토리북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발간

코로나시대 일상 담은 책자 발간...구민들의 이야기·사진 등 수록

광진구가 코로나 시대의 일상을 담은 스토리북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코로나 극복 의지와 희망을 구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는 참여 이벤트를 통해 구민들의 코로나 관련 에피소드 등을 공모하고 구민들이 SNS에 직접 게시한 이미지를 수록해 구민의 실제 일상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 구민들의 지친 일상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느낌의 디자인

을 적용했으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짧은 이야기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집콕 일상, 안심식당, 선별진료소, 착한 임대인, 온라인 수업 등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로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책자는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및 주요 다중이용 시설에 비치되었으며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김선갑 구정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잠깐의 휴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며 "새해에도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구민 모두와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새해 첫 연주, '2021 신년음악회'

마스터즈시리즈1로 '2021 신년음악회' 15일 개막

대전시립교향악단은 새해 마스터즈시리즈 1로 '2021 신년음악회'를 준비해, 오는 15일 개막한다. 객원지휘 백윤학의 지휘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협연으로 번스타인 '세레나데'와 바르톡 '현악기와 타악기 및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새해 첫 정기연주 지휘봉을 잡은 백윤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부를 졸업 후 동 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지휘를 전공하며 음악에 시작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지휘자이다. 전반부에서 연주 될 번스타인 곡 '세레나데'는 그의 작품 중 가장 세련되고 일관성 있는 걸작 중 하나이고 손꼽히는 작품으로 사랑의 신 에로스 에 대한 담론을 화려하게 표현한다.

이 곡을 함께 협연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지적이고 매끄러운 독보적 음색을 가진 연주자로 2015년 제54회 프레이모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수상했고 현재 세계 전역의 유서 깊은 공연장과 명문 악단과의 공연으로 젊은 현악의 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바르톡의 '현악기와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이 연주된다. 현대작곡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바르톡의 전성기 작품이며 20세기 음악의 대표 걸작으로 손꼽히는 곡으로 헝가리 민족의 혼이 원숙하지만 간략하면서 분명한 기법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첼레스타는 소형 업라이트 피아노와 유사하게 생긴 관현악단용 타악기의 일종이다. 이번 음악회는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객석 거리두기를 진행하며 객석 전체의 30%만 운영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객석 운영의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고정화기자

대전시립교향악단
Daejeon Philharmonic Orchestra
2021 New Year Concert
Masters Series 1
제325회 정기연주회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음악백인!

2021 신년음악회

대전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 1

객원지휘 백윤학
Conductor Younghak Baek

바이올린 양인모
Violin In-mo Yang

PROGRAM
번스타인 세레나데
L. Bernstein: 1919-1989, Germany
20세기 현대음악의 최고 작품으로
아름다운 수완이 내는 소리를 담은 바르톡 작품
바르톡, 현악기와 타악기 및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B. Bartok: 1881-1945, Hungary for Strings, Percussion and Celesta

2021. 1. 15.(금) 19:30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Fri. 15. Jan. 2021 19:30 Daegwon Yeongseong Korean Traditional Music Center, Big Hall

문의: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팀 ☎ 042-200-4282-4
홈페이지: www.daejeon.or.kr
문의: 대전시립교향악단 ☎ 042-200-0008, 5층 20,000원, 4층 10,000원, 8시 5,000원
홈페이지: www.daejeonpho.or.kr

이성윤기자

부산시, 2천2백억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 발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연계, 부산의 희망을 밝히는 든든한 울타리 마련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3가지 방향을 두고 마련했다.

첫째,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한층 더 덜고자 했다.

둘째, 그간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다.

셋째,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더 낮혔다.

특히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피해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고 지역 민생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총 2,200억으로 직접지원 750억원,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1만 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원, 총 110억원을 지원하고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천 곳에 대해 업체당 50만원, 총 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금 총 540억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그간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료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원씩 총 6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남궁영기자

서천군, 2021년 주민안전 사회 구축과 조기 경제 회복 총력

'일자리 확보', '농수산업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 정책 집중 추진

서천군이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발생한 주민 안전과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 먼저 주민 안전을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 및 감염병 위기대응 감시체계를 강화해 총사업비 2억 7900만원 투입,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정담 클리닉'을 상시로 운영하고 감염병 신고체계와 질병정보모니터링을 지정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지역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군민들의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중점 추진 중인 '서천형 커뮤니티케어'의 완성 모델을 구축한다.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는 초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성 높은 보건지소를 활용,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주민들에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방문 의료 제공,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서비스와 주민자치회 등 기관·단체와 주민들의 민간 지원을 함께 제공하며 '자기 집에서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정착시키고 있다. 2021년에는 보건, 의료의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해 보건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

해 건강 돌봄체계를 구축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실천할 방침이다. 주민 안전 체계 구축과 함께 서천군은 조기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확보'를 꼽았다. 먼저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2단계 개발기본계획을 2-1단계, 2-2단계로 분할하고 임대산업면적을 기존 32만 1004㎡에서 13만 8363㎡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해 선도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진흥기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임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토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 등 재정지원을 일자리와 더불어 4월 출범한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에서 지역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천군의 근간 사업인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서면 소재 친환경쌀문화센터 일원에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서천형 공유농업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

라고 전했다. 공유농장, 공동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아카데미,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2019년부터 서면 소재 김가공특화단지 내에 조성 중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올해 1분기에 준공한다. 화일 김, 롤김, 김말이 튀김 등 수산물 가공시설과 신제품 연구·개발시설이 조성되며 준공되는 대로 가공시설의 시운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211억원을 들여 송서항과 송림항·유부도의 통합 특화개발로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2022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서항에는 해의커뮤니티센터, 습갈목습담방로 선양장 보강, 진입로 조성 등이 추진되고 송림항에는 갯골어울림센터, 생태담방로 조성, 진입로 공공화장실, 주차장 등이 정비된다. 또한, 유부도에는 커뮤니티복합센터, 생태체험장, 집안시설보강, 경관사업이 추진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2020년에 이어 끝없는 코로나의 재확산과 장기화로 군민 생활과 안전, 경제에 큰 위험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민 안전과 건강, 조기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2021년에는 서천군의 곳곳에서 군민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발전을 체험할 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청년창업농·후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청년창업농에게 영농경력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매월 80~100만원의 영농정착금 지원

전주시가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을 농업인 13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들은 농촌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농과 가업 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들이 미래 주요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대출해주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선정된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들에게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구매 등의 용도로 정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정책자금 대출은 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경력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매월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영농정착금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미만인 자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면서

농업계 관련 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다. 신청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전라북도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면접평가와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유능한 젊은 예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2021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시행

포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0억원 증액된 5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리의 1.5%~2.5%를 포천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관내 기업 경

영여건 제고를 위해 화재피해 기업 융자지원이 2021년 신설됐다. 신청 및 접수는 자금 소진 시까지 협약된 은행에서 가능하다. 협약은행은 국민은행 포천지점 규모는 중소기업은 포천지점 기업은행 송우지점 농협은행 포천시지부 농협은행 송우지점 우리은행 포천지점 신한은행 송우지점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 하나은행 포천지점이며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포

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 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재차 연장해 3천여 곳에 150억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는 대출이자 전액, 집합제한은 0.1~2.1%대의 초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운영,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

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에 흔들림 없는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 본격화

전주시가 사회적가치 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지원한다. 시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최근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중개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해까지 조성된 전주시사회적경

제활성화기금 8억원과 중개기관의 자체자금 1억6000만원을 더해 총 9억6000만원을 기반으로 융자 사업을 하게 된다. 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융자의 경우 5000만원까지, 자산화 사업은 3억원까지, 재생에너지사업은 약 2억원까지 연 2.5~3%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게 된다. 융자 신청은 추후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진행

하는 공모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및 방문 상담과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된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 창출만이 아닌 상생과 나눔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8일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3.3㎡당 1200만원대 ‘착한 분양가’, 입지와 상품성까지 갖춘 브랜드타운 관심 뜨거워

▶ 18일 특별공급, 19일 1순위 청약·C1, C3, C4 총 3개 블록별로 각각 청약 가능

▶ 사이버 모델하우스 내 다채로운 콘텐츠 선보여 실수요자 정보 제공 극대화

▶ 완성형 인프라·미래가치 갖춘 메타 언택트 시대 발맞춘 ‘수자인스마트홈1.0’ 첫 도입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에 들어서는 ‘의정부 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가 8일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www.sujain-gs.co.kr>)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코로나 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견본주택 현장 운영을

대체한다.

의정부 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는 고산지구(의정부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약 130만㎡) 3개 블록(C1, C3, C4블록)에 들어서며, 총 240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69㎡, 79㎡, 84㎡, 101㎡, 125㎡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며, 시공은 한양, 보성산업이 맡았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형 개발호재(법조타운 예정, 복합문화융합단지 예정 등)가 대기 중인 입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수자인스마트홈1.0 시스템 등 차별화된 주거시스템과 특화설계로 상품성을 높였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로 3.3㎡당 약 1200만 원대의 합리

적인 분양가에 공급되어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청약 일정은 1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청약접수로 이어진다. 청약 접수는 C1, C3, C4 총 3개 블록 각각에 대해 가능하며, 전매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간 금지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예비 청약자들이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하지 않고도 단지 특징점과 세대 구성, 청약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김재우·조유리 부부가 출연하는 모델하우스 탐방 영상, 아나운서가 견본주택 내부의 모형도와 건립세대(유니트)를 소개하는 안내 영상, 견본주택 내부 모형도와 세대 건립 실물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3D VR(가상현실) 영상 등을 제공한다.

경기 북부권을 대표할 총 2407세대 브랜드타운답게 다양한 주거시스템과 차별화된 특화설계도 선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공기 청정 및 언택트 기술을 주거시스템에 적용한 ‘수자인스마트홈1.0’을 첫 도입한다.

수자인스마트홈의 ‘Six Zone 수자인 클린에어&언택트 솔루션’은 단지 입구부터 지상 공간 등 미세먼지 발생지역을 6곳으로 구분해 비대면으로 관리함으로써 출입구부터 세대 내부까지 미세먼지를 저감 및 차단한다. 지상 외부 공간에는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하고, 단지 내에 미스트 조형물(인공 안개 고압 분사)을 설치해 쾌적함을 높일 예정

이며, 동 출입구 에어샤워, 승강기 내부 미세먼지 저감 장치도 마련된다.

언택트 솔루션 구축도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과 카드로만 자동 출입이 가능하며, 손 동작으로 엘리베이터 승차가 가능한 엘리베이터 모션콜 시스템 등이 도입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공용현관 등의 버튼을 만지지 않고 단지 내부를 안전하고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전 세대 관상형에 4베이 설계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타입별로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가변형 벽체 등을 제공해 수납공간을 극대화 했다. 블록에 따라 피트니스센터,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도 도입된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 전세·매매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우수한 입지와 개발호재, 수자인스마트홈 1.0 첫 적용 등 빼어난 상품성은 물론 착한 분양가까지 갖춘 의정부 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의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다”며, “총 3개 블록 각각 당점자 발표일이 달라

3개 블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자격이 된다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을 함께 청약하는 것이 당점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 문의 : 1668-2407

* 사이버 모델하우스(공식 홈페이지) : <http://www.sujain-gs.co.kr/>
김영근기자



의정부 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